

#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07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 의 자 : 윤준호 · 이양수 · 오영훈  
박주현 · 김성찬 · 강석진  
경대수 · 황주홍 · 손금주  
손혜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법률 제 호

##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u>부착</u> 할 것	6. ----- ----- -----불일---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u>해소</u>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 ----- ----- -----. -----없어

<p><u>된</u>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u>진</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